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 11. 17.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정순옥 의원 등 6명(황국주, 권숙자, 박정환, 박종길, 장호섭)
- 발의일자: 2022. 11. 4.(금)
- 회부일자: 2022. 11. 4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2.11.17.)

2. 제정이유

-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9조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시화·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)
- 나. 구청장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및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 명시함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- 라. 자녀돌봄품앗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- 마.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사항을 지도·점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9조, 「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3
-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- 입법예고(2022. 11. 4. ~ 2022. 11. 15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제정조례안은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·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 지역사회의 품앗이 돌봄을 통해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
-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안 제4조에 달서구의 육아현실과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청장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·운영하여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확인하고
- 안 제7조에서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장려를, 안 제8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지도·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.
- 공동육아나눔터는 2010년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, 2012년 2월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설치·운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,
- 2022년 8월말 현재 전국에 357개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·운영되고 있으며, 이중 대구에 16개, 달서구 관내에 2015년 아이나래가 개소되고, 2018년 꿈도담터, 2019년 다도담이 개소되어 총 3개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·운영되고 있음.
- 특히 아이나래와 다도담 공동육아나눔터는 보호자를 동반한 취학 전·후 아동을, 꿈도담터 공동육아나눔터는 초등학교 1~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2021년 3개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는 9,157명이었으며, 2022년 8월말 현재 7,239명에 달하고 있음.

- 또한 품앗이 돌봄사업으로 10개 그룹, 36가구 96명이 이용하는 등 육아정보 공유 및 엄마표 놀이활동을 통해 육아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.
- 제정조례안은 핵가족화와 맞벌이로 인한 육아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지역 사회가 육아에 참여하여 육아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육아나눔터는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설립·운영근거를 두고,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